



## 20250706 주일

제목: 한 구원자를 세워

본문: 사사기 3:1-11

설교: 이성훈 목사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니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라 10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웃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웃니엘이 죽었더라

우리 인생의 한 구원자가 세워져야 할 이유....

내 인생에 한구원자가 세워져야 할 이유는

1. 인생 시험장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다음세대들은 무지합니다. 정복전쟁도 하나님도 하신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일을 아는 것이 백성들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부모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시험문제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강자들입니다. 종교 문화가 발달되어... 이스라엘이 폭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풀어야만 하는 시험문제입니다.

2가지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는데

1. 전쟁을 알게 하심입니다. 머리가 아닌 야다... 몸으로 깨달은 지식...인생이 편한게 아니고 힘든 전쟁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구원자가 없이는 버틸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그 전쟁터에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하는지 드러내시려고 하심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도록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백성을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가나안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이 잘 살고 있는 착한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나운 가나안 혹은 순하고 착한 가나안인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나쁜원주민 착한원주민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게 해주는 가나안인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험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시험을 위한 것입니다. 더 좋은 문제는 쉬운 가나안일까요 사나운 가나안일까요? 나쁜 가나안 인들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데 쉬운 가나안인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잘 모르게 합니다.

우리가 고르지 않은 환경 부모 등...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들도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시험장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인생 시험장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빠져나올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시험장 밖으로 나갈수 없습니다. 쉬운 문제 만나면 문제인지도 모르고 끝납니다. 힘든 문제는 힘들어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나를 건져줄 한 구원자가 세워져야 하고 필요한 겁니다.

한구원자인 예수님이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구원자가 세워져야 될 이유 2번째는

2.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시험문제에 나름 답을 써냈습니다. 그 답이 '불신결혼' 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결혼시키고 사돈을 맺습니다. 적극적으로 붙잡고 의도적으로 취했습니다.

유다 지파 가정의 딸이 혼기가 차다고 가정해봅시다. 동네 청년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무 돌 청동, 구리 가지고 좋게 봐주고 싶어도.. 아쉬운 2%를 지울수 없네요... 가나안을 보니 동네 자체가 렉서리하고 핫한 포도원 농장 집의 때가 찬 둘째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보니 포도농사 기구가 최신식 철로 되었어요. 집도 넓고 좋고 바알 아세라 신상이 있고 구경도 하기 어려운... 대리석 돌신상인데 골드...를 붙이고 밑에는 철로 된 단단한 받침대 신상을 집에 두고 있습니다. 딸의 아버지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눈이 돌아갑니다. 저 집에 시집가면 대박나겠다. 놓치면 안되!! 믿음의 기준은 늘어두고 눈앞의 행복조건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불신결혼인 겁니다. 거룩대신 행복, 말씀대신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채점은.... 악을 행했다라고 채점하십니다. 빵점입니다.

부분점수.... 없을까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구요 그들과 잘 지내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천년 만년 잘 지낼수 있을줄 알았는데 빵점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이미 신명기에 알려주셨어요. 이방인과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은거예요 선한영향 끼치기 보다는.... 악한 영향 받기가 훨씬 쉬운 우리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멀리멀리 떠나갈 확률이 높고 우상숭배로 갑니다. 어째서 우리는 항상 악을 행할까요?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기 때문이고 내 감정 열심 욕망 모든것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는 교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집을 부리게 만듭니다.

아버지 부재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던 형제는... 오히려 자기 방식이 되어 맘에 안드는 아들을 도구로 여기며 이유없이 때리기 시작하다가 공동체에 와서 양육을 받으며 문제부모만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고백하니 아들보다 내가 더 문제로구나 인정하고 회개 하게 되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적용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라는 처방에 순종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평생 어머니를 탓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을 독수리가 쏘다느 말에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낳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하는 말에....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을텐데... 말씀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보고 고집을 인정하고 회개하니 악행이 서서히 멈춰지게 될줄 믿습니다.

교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악을 행할뿐이고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 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만큼 진노하시는 겁니다. 왜곡하면 안됩니다. 진노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 하며..... 사랑한 만큼 진노하는 겁니다.... 진노한 만큼 사랑하는게 아닙니다...ㅋ

빵점 맞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진노하시기에 구산 왕에 손에 넘기십니다. 종살이 시키시며 이스라엘 다음세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성적표를 받게 되고 잠이 확깨갠죠... 의미가 있어도 아픈건 아픕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니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절망스러워 죽고 싶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 바라보고 섬기는 악행일뿐입니다. 우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악행을 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줄 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절망은 구렁텅이가 아니구요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고 떠나려 했다가 다시 찾는 디딤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던 악을 멈추고 구원을 향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여당, 아내님은 야당입니다.

부모님은 자신감, 아내는 절망감.... 깊게 핑크하면 주님께 돌아가게 한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절망감이더라고요.. 저를 구속사의 길로 이끈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아내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 편한 환경, 존중하는 마음은 감사한 것이지만 오히려 제 안에 감춰져 잇는 제 악을 더 깊이 가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수고해주는 이 힘든 결혼 생활은 저의 악함을 남김 없이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의 구속사를 만들어주는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2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아내다.... 부모가 아니라.. 아내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내 구속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자가 세워져야 할 이유는

### 3. 구원만이 인생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종살이 하며 절망감에 빠진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께 죽을듯한 고통가운데서 죽고싶은 절망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부르짖고 외칩니다. 너무 뻥뻥해 보여요 인본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동안 가나안 부러워하다가 이제 살려달라고 해? 염치없어 아유... 보일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염치없고 체면 차리지 못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고 내새끼.... 이기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뻥뻥하게 부르짖는 나의 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르짖으며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 이혼 탈출 떠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염치 교양 생각하지 말구요... 하나님 앞에 다 가져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말로 체면이 잘 안빠지더라구요..... 진짜 죽을거 같은 고난이 오면 다 내려놓아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고난이 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치 없고 찌질해보이는 기도를 들어주실뿐아니라.. 은혜의 시작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요? 라는 생각하시죠? 우리 머리의 생각이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보잘 것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일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뭐해?가 아니라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서러움과 분노와 우울이 올라온 목자님께서 목장 안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듣고 하신적이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힘들때마다 부르는 주제곡이잖아요... 이런생각이 들때 어떻게 하시나요? 목자님은 그 순간.... 머리속에 목장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안하면 우리 목원들 어떻게 하나... 이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번쩍 들면서 지금까지 목장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들이 주마등치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공동체 땀에 지켜진 순간들이 떠오르며... 염치 없지만 무릎쓰고 내가 뭘 도와줄까? 하며 잘 도와 목장 나눔을 잘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목원들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마루로 나간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 싸운것입니다. 떠나고 싶고 안하고 싶을때마다 잘 부르짖으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가문,성품, 능력이 아닌 웃니엘은 정통 유대인이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라 자손도 그렇고 웃니엘도 배경 조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죄패를 달고 불러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와의 영이 그에게 힘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원도

사람에게서 나올수 없습니다. 웃니엘 스스로 이겼다고 기록하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웃니엘의 손에게 넘겨주시매 이겼다고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40년 동안 웃니엘기간동안에는 평온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구원자일까요?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100명 보내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사들은 진짜 구원자를 가리키는 화살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사들도 다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완성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자는 단 한분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늘 플랜b와 대체제를 찾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시험에서 최대 시험인 구원의 시험에서 여러가지를 준비하려고 하지만 정답이 딱하나 입니다. 부분점수 없어요. 오직 한 구원자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거의 합격 거의 구원 부분구원 반쪽천국 없습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구원의 시험에서는 오직 한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다 맞아도 이 문제 틀리면 빵점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많은 문제들 다 틀려도 내세울게 없어도 구원의 문제 하나 맞추면.... 100점 인생인줄 믿습니다. 구원만이 인생의 답입니다.